

광주 일회용 플라스틱컵 단속 '유명무실'

사용금지 100여일 지났지만 일부 커피전문점 등 제대로 안지켜 5개 자치구 8월부터 1487개 매장 대상 단속 불구 적발은 '0건'

회사원 박진수(45·광주시 북구)씨는 지난 1일 점심식사 후 동료와 함께 스타벅스 광주 지산유원지입구점을 찾았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매장에서 마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매장 직원이 별다른 설명 없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아 커피를 제공한 것이다.

매장 주문대에는 녹색 텀블러 그림과 함께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매장내 일회용 컵(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버젓이 비치돼 있었다.

박씨는 "평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 테이크 아웃 시엔 텀블러를 사용하는데, 매장내 컵이 떨어졌다면 플라스틱컵에 담아 줘 불쾌했다"면서 "당시 매장 곳곳에 빈자리가 많을 정도로 손님이 많지 않았다. 국내 최대 업체인 스타벅스조차 일회용컵 사용 금지 정책을 위반해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광주의 대표 변화기인 총장로를 비롯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내 편의시설인 유스퀘어 입점 매장 등도 일회용컵 사용제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정호주 스타벅스 코리아 홍보사회공헌팀 대리는 "자체 확인결과 당일 지산유원지 입구점에서 머그컵이 많이 깨져 불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객이 많이 몰리는 점심 시간대까지 겹치면서 불가피하게 매장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게 됐다"면서 "현재 충분한 양의 머그컵을 발주한 만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스퀘어내 한 커피매장 직원은 "대부분 버스 시간을 기다리는 승객들이 많아 일회용컵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어느 순간부터 바쁠 때는 습관적으로 일회용컵

을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 8월부터 시행중인 매장내 일회용(플라스틱)컵 사용 금지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규모 커피 전문점은 물론이고 세계 최대 커피프랜차이즈 업체인 스타벅스마저도 일회용컵 사용 금지 정책을 제대로 지키고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8월 2일부터 전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의 매장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현장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여전하다.

동구 총장로 인근이 직장인 김연정(여·26·광주시 남구)씨는 "점심식사 후 회사 근처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 때가 많은데, 냉음료의 경우엔 플라스틱 일회용컵에 담아 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는 따뜻한 커피를 주문하면

아예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준다. 재활용이 되는 종이컵은 단속 대상이 아닌 줄은 알고 있지만, 매장 내에선 아예 머그컵을 사용했던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매장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계도 중심의 '수박 겉핥기식' 단속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또 매장직원이 머그컵 사용을 권했음에도 고객이 일회용컵을 요구한 뒤 매장에서 마실 경우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 단속 예외조항이 있는 것도 일회용컵 단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지난 8월부터 총 1487개 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단속을 나섰지만, 위반업소 단속실적은 '0'건이다. 결국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 자치구별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실적부과식 과태료 부과 보다는 계도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음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초교 앞 교통지도 할머니 '안타까운 죽음'

수학여행 버스에 치여 숨겨 한 광광버스 앞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게 유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로에는 광광버스 10여대가 정차해 있었으며, 사고 버스에는 학생 20여명이 타고 있었다.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버스기사 B(55)씨는 경찰에서 "버스 바로 앞에서 있던 할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신호가 바뀌자 주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학교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 할머니는 지난 3월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 하나로 초등학교 앞 교통지도를 해왔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 특별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A 할머니는 수학여행에 나서는 6학년 학생을 태우기 위해 정차

/김음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산구 금고선정 심사위원 명단 유출 공무원 입건

광주시 광산구 1급고 운영기관 선정 심의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광산구 금고지정 담당 공무원 A(6급)씨를 공무원 기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금고선정 심의를 하루 앞두고 심사위원 9명을 확정해 지난달 23일 국민은행과 농협 측에 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2

차례 진행했으며, A씨가 관련 혐의를 인정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면서 "(대가성 여부와 타 관련자가 있는지 등) 나머지 사안은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산구 확인 결과, 명단유출 이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가 열리기까지 만나질 사이에 은행 양측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구는 지난달 24일 30년 만에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제1급고 운영기관을 교체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CJ택배 노조원 파업...광주 200명 참여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광주지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전국택배연대노조(택배연대) 광주지부가 21일 파업하기로 했다.

20일 택배노조와 택배연대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200명으로 모두 CJ대한통운 소속이다.

21일 상경 투쟁을 시작으로 22일부터

는 광주 곳곳에서 쟁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CJ대한통운의 반노동자 정책으로 다치거나 숨지는 택배노동자를 막기 위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파업은 교섭이 끝날 때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음희 기자 kimyh@kwangju.co.kr

130년 된 천종산삼 4뿌리 발견...감정가 3억5000만원 '심봤다'

○-60대 심마니가 화순군 모후산에서 감정가 3억5000만원 상당의 천종산삼을 발견해 화제.

○-20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회장 정형범)에 따르면 심마니 김모(63)씨는 최근 화순군 모후산 자락 동북방향 7부 능선 앞면 지역에서 130년 추정 천종산삼 4뿌리를 발견했다는 것.

한국전통심마니협회 감정 결과 4뿌리는 각 무게가 75g(2뿌리) 정도로, 질은 황색을 띠고 있었는데, 협회 관계자는 "몸통(약통)은 백색 산삼의 특징인 양각삼(羊角參)이나 동지삼(冬地參)의 형태를, 뿌리 부분은 일반 산삼에 비해 매우 길게 발달해 60cm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최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아동학대 은폐 성빈여사 원장 과태료 150만원

광주시 동구가 아동 학대 사실을 은폐한 광주 YWCA 산하 보육시설 성빈여사 원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성빈여사 원장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해당 원장이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와 재발방지책 마련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원장은 지난 9월 직원 2명이 밥을 먹지 않자며 손가락으로 때리는 등 아동학대사실을 보고받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설명회 '집중' 20일 오후 광주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9학년도 수능 결과분석 및 대입 지원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진학담당교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첫 동물장묘시설 놓고 주민 반발

광주 첫 동물장묘시설(화장·장례·납골) 설치를 놓고 마을주민과 사업자간 갈등을 빚고 있다.

20일 광주시 광산구와 송학동 송계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6월7일 광주시 광산구 송학동에 지상 2층 규모의 동

물장묘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광산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지난 10월 1차 도시계획심의 안전에 상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진출입구간 감속차로 확보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린 상태다.

해당 장묘시설이 예정대로 완공되면 1층

에는 장례식장과 전용 화장시설이 조성된다. 2층에는 납골당이 들어선다.

시설 부지인 송학동 송계마을 주민들은 장묘시설 설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장묘시설 예정부지가 광산구 신동 내기마을(직선거리 500m) 및 송학동 송계마을(직선거리 400m) 금동저수지와 인접(직선거리 100m), 농경지·환경 오염, 골

분배출, 악취발생, 마을 이미지 훼손 등으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건축허가가 접수돼 심의중에 있다"면서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착공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광주 ·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매매 · 임대 다량보유,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